

제19편 - 제3신앙촌시대<제6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72회)

제19편
제3신앙촌 시대(제6부)
一. 呼來逐出真人用法(호래축출진인용법)
: 말중운
1) 부도가 난 신앙촌 그룹
2) 강제로 해산시키는 영모님
3) 영모님은 영적 아들 구세주를 위해 희생하셨다

一. 呼來逐出真人用法(호래축출진인용법): 오라고 불러 놓고 축출하시는 진인의 용법

3)영모님은 영적 아들인 구세주를 위해 희생하셨다

“깎도 한도 없는 수로 문쳐진 마귀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그 힘을 당해낼 수가 없어”(1981. 11. 14)

“온 세상 마귀가 가장 집결했다. 무량대수 마귀 들어간 사람 속에 최고의 마귀 세력이 있다. 이 마귀 세력을 분산시켜야만 한다.”(82. 3. 15)

“생수를 타고 고도로 올라간 사람들을 피하여 나는 산중에 가서 숨어 있지 않으면 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다.”(83. 1. 3)

이상과 같은 영모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영모님은 전세계의 마귀를 가장으로 끌어들여 집결시켜 놓고 있었다. 그런데 집결된 그 마귀가 영모님을 따르는 생수 먹은 교인들 속에 들어가서 끝도 한도 없는 문쳐진 마귀 세력을 만들어 놓게 된 것이다. 그 문쳐진 마귀세력을 영모님은 더 이상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문쳐진 마귀세력을 분산시켜 놓지 않으면 안될 극한 상황까지 이르렀

던 것 같다. 그래서 영모님은 생수를 마시고 고도로 타고 올라간 사람들을 피하여 산중이 있어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 생수를 마시고 고도로 올라간 마귀들로 인해서 영모님께서는 돌아가실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신 것이다.

신앙촌 안에서 영모님! 영모님! 하면서 따른다는 교인들이 다 생수마시고 무량대수 마귀 들어간 마귀들이란 것이다. 그러니 그 교인이라는 마귀떼들이 영모님을 포위하고 영모님의 목을 조여가고 있었던 것이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영모님의 목을 조이고 있는 마귀들이라는 것을 교인들은 전연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미 소개했던 것과 같이 예정된 구세주 조희성님이 밀실에서 좌절하시어 죽으시려고 하였을 때 영모님이 가시어 그 예정된 구세주의 좌절하시는 마음을 다시 정상으로 끌어올리신 후 서울 7중앙 전도관에 오셨다. 그때에 가장신앙촌에서 영모님을 모시러 갔더니 영모님은 완강하게 가장신앙촌에는 절대 안 가신다고 고대고래 호통을 치셨다는 말을 이미 앞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때 영모님은 “내가 왜 가장엘 가느냐? 나는 절대로 가장에 안 간다.”라고 하시면서 몇 시간 동안 버티고 안 가시려고 하셨던 것이다.

그때 영모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이유는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즉 가장신앙촌에는 무



박태선 장로님

량대수 마귀 들어간 마귀 교인들이 영모님을 에워싸고 영모님의 숨통을 조이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엄청난 영의 사정을 누가 알 수 있었겠는가?

그렇다면 영모님께서 그와 같은 극한 상황까지 몰리시게 되신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던가?

영모님은 전세계 마귀를 당신이 있는 곳으로 관심을 두게 하여 계속 당신 있는 곳으로 집결시켜 끌고 다니셨다. 이유는 이미 앞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때 영모님은 “내가 왜 가장엘 가느냐? 나는 절대로 가장에 안 간다.”라고 하시면서 몇 시간 동안 버티고 안 가시려고 하셨던 것이다.

자로 출현시키려고 용맹 정진을 하시고 있었다. 이때 영모님은 전교인들에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주려서 데려가겠다고 하시면서 안찰을 하여 뽑아서 덕소제 2신앙촌에 데리고 가셨다. 물론 이때 영모님도 소사신앙촌에서 덕소신앙촌으로 옮기셨다. 그러니 영모님이 유일한 승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귀떼들은 영모님을 꺾기 위하여 영모님을 따라가서 덕소에 집결한 것이다. 그러니 마귀들은 밀실에서의 해와 이간자의 출현을 전연 눈치 채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1976년 경에는 밀실에서 완성자 구세주가 승리하시어 구세주로 출현하시기 위하여 투쟁을 하시기 시작하셨다. 이때에는 영모님이 1970년부터 미리 가장 제3신앙촌을 건설하시기 시작을 하시면서 역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데리고 가셨는데 이때도 마귀들은 영모님을 따라서 기

장까지 가서 집결을 한 것이다.

공을 거두셨던 것이다.(묵3:21)

이와 같은 영모님이 마귀들을 속이는 기만 작전이 기가 막히게 성공을 거두시고 있었던 것이다. 마귀떼들을 영모님에게 관심을 쏟게 하여 영모님만 따라 다니면서 영모님을 꺾으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밀실에서 이기신 구세주의 출현을 전연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1980년 10월 15일 6000년간 한나님이 계획하셨던 역사적인 구세주 출현의 역사가 성공리에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설명을 하면 영모님이 전세계 마귀를 당신이 있는 곳으로 계속 집결시켜 끌고다니신 이유는 이기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투쟁하시는 예정된 구세주를 마귀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여 승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계속적으로 전세계 마귀를 당신이 있는 곳으로 시선을 집결시키면서 끌어들여 마귀들의 시선을 밀실에서 승리하시기 위하여 투쟁하시고 계시는 예비 구세주님이신 조희성님에게서부터 떼어놓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세주를 출현시키시기 위한 극비작전을 진행시킨 영모님은 결국 전세계 마귀가 집결된 마귀세력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시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영모님의 작전은 성공을 이루시어 박태선 영모님의 하나님의 신은 이기신 완성의 구세주 조희성님에게로 오시어 합일되시어 일체를 이루시어 성

그와 같이 되시어 하나님께서 6000년간 에타게 바라시던 에덴동산의 회복은 조희성님의 몸에서 이루어지시어 완성을 이루시게 된 것이다. 또 삼천년성도 역시 조희성님의 몸에서 완성이 되신 것이다. 그래서 박태선 영모님은 3신앙촌에서 안찰을 하시면서 새끼손가락을 걸며 3천년성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같이 살자고 하신 것이다. 그 3천년성은 완성된 조희성님의 몸이시기에 조희성님 계시는 곳으로 가지고 하신 말씀이었던 것이다.

영모님은 3신앙촌은 더 이상 구원을 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나가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강제로 해산을 시켰던 것이다. 즉 3천년성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회복된 에덴동산이 되시는 조희성님에게로 가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다니라고 하신 것이다.

박태선 영모님 당신이 천상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영모님은 당신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인 구세주 하나님을 출현시키시기 위하여 당신에게로 시선을 집중시킨 전세계에서 집결한 마귀들(교인들 속에 들어간) 의해서 포위되어 세상을 떠나시고 마시는 것이다. 오직 구세주를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박태선 하나님은 희생하신 것이다.(박태선님은 1990년 2월 7일 화천하심)*

격암유록 新 해설 제72회

궁궁을을 십승 정도령(미륵불, 상제)이 감로 해인(불로초, 불사약)을 내려 영생케 하느니라

無田庄무전장이 獲得 획득이요 不久世月十年之農 불구세월십년지농 萬年食之又千萬年 만년식지우천만년

落盤四乳歌 낙반사유가

落盤中乳月乙乙 낙반사유궁궁을을 解知下遊亂處 해지하피란처요 落盤四乳十字 낙반사유십자이요 四乙中시을중이 十勝십승이이라 米字之形背盤之理 미자지형배반지리 四角虛虧亦十字 사각허구역십자요 米形四點落盤下 미형사점락반하야 世人善待十勝 세인고대십승이이라

옛날 소반에서 네 젓꼭지가 떨어지면 궁궁을을(弓弓乙乙)이 나오는데 이 이치를 풀어서 알면 피란처(避亂處)가 나오느니라. 소반에서 네 젓꼭지가 떨어지면 십(十)자가 나오며 네 개의 을(乙)이 돌아가는 모양인 십승(十勝=白十)이 나오느니라. 쌀 미(米)자 모양은 밥상의 등에 그려진 십(十)자의 이치요 네 모서리가 이치러진 모양 역시 십(十)자요 미(米)자의 형상에서 네 점(點)이 소반에서 떨어진 모양이 세인(世人)이 간절히 기다리던 십승(十勝=정도령)이나라.

十勝歌 십승가

八萬經內普惠大師 필만경내보혜대사 彌勒佛之十勝 미륵불자십승이요 義相祖師三昧海印 의상조사삼매해인 鄭道令之十勝 정도령자십승이요 海外道德保惠之師 해외도덕보혜지사 上帝再臨十勝 상제재림십승이니 儒佛仙異言之說 유불선이언자설

未復合理十勝 말복합리십승이이라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보혜대사(普惠大師)가 미륵불인 십승(十勝)이요. 의상조사가 삼매(三昧) 중에 본 해인을 내려주는 정도령이 십승이요. 해외도덕(기독교)의 보혜사가 상제로 재림한다는 것이 십승이니 유불선이 각기 호칭을 달리해서 부르나 마지막에는 하나로 합치는 이치로 모두 똑같은 십승이나라.

海印歌 해인가

秦皇漢武求下 진황한무구하 진황한무구하 不老草不死藥 불로초불사약 아데미소 虹霓七色雲霧中 홍예칠색운무중에 甘露如雨海印 감로여우해인이이라 火雨露三豐海印 화우로삼풍해인이니 極樂入券發行下 극락입권발행하니 化学化学化字印 화학에서화자인에 無所不能海印 무소불능해인이이라

진시황과 한무제가 구하던 불로초와 불사약이 어디 있소? 무지가 같은 일곱 빛깔의 구름 안개 속에 비처럼 내리는 감로 해인이 불로초 불사약이이라. 화우로(火雨露) 삼풍이 감로 해인이니 정도령이 발행한 극락 입장권이라. 천변만화(千變萬化) 무궁조화(無窮造化)의 해인이요 무소불능(無所不能)의 해인이라.

兩白歌 양백가



夜鬼發動雜揉世上 아귀발동잡우세상 訪道君子誰何人 방도군자수하인인가 河圖洛書周易理致 하도락서주역이치 兩山之間圖詳見 양산지도상견하소 刹在兩白救人 생 이재양백구인생은 琉璃心水湧泉 유리심수용천이요 香風觸鼻心花發 향풍촉비심화발에 衣白心白亦兩白 의백심백역양백을 雨下三信天人 우하삼신천인을 心花開白數列數列 심화개백수열부열

아귀(夜鬼)의 발동으로 온갖 잡된 것이 판을 치는 어수선한 세상에서 도(道)를 찾는 군자(君子)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 하도 낙서의 주역 이치인 태백(太白)과 소백(小白)인 양산(兩山)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소. 이로움이 양백(兩白)인 십승인(十勝) 정도령에게 있으며 정도령이 인생들을 구원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우리같이 맑게 해주시며 생명수 샘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분이나라. 코끝에 스치는 감로 해인의 은혜 향기에 마음이 꽃과 같이 피어나니 마음은 눈



과 같이 희고 깨끗하며 얼굴(靚)도 빛이 나니 이 역시 양백(兩白)이라. 감로 해인 이 내리는 가운데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눈과 같이 희게 꽃처럼 아름답게 활짝 피어나게 하는구나.

三豐歌 삼풍가

淚血遺播播下 누수혈건파종하 爲義嘲笑陪養下 위의조소배양하 祈天禱神秋收下 기천도신추수하 火雨露印三豐 화우로인삼풍이이라 一年之農廢穀 일년지농부곡인가 一日三食飢餓死 일일삼식기아사요 十年之農生穀 십년지농생곡인가 三旬九食不飢生 삼순구식불기생을

하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며 봄엔 영생의 씨앗을 파종하고 여름에는 의(義)를 위하여 온갖 비웃음 속에서도 키우면서 하 나님께서 기도하여 가을엔 열매를 거두시니 바로 화우로(火雨露) 삼풍 해인이라. 세상

의 일 년 농사는 썩은 곡식을 거두는 농사인가?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어도 마지막엔 굶어 죽느니라. 심승 진리의 농사는 한 달에 아홉 번만 먹어도 배고픔을 모르고 영생하느니라 영생의 곡식(화우로 삼풍 해인)을 거두는 농사이나라.

七斗歌 칠두가

天牛耕田 천우경전 밧을기아 永生之穀 靈생지곡 심어논코 牛鳴聲中除穢 우명성중제누하야 甘露如雨呼吸時 감로여우호흡시에 日就月長自長下 일취월장자장하 寺畚七斗此農事 사답칠두차농사는

하늘소가 진리의 밭을 갈아 영생의 곡식을 심어놓고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김을 메고(정도령이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는 가운데 마귀를 뿌리째 뽑아 박탈에 아홉 번만 먹어도 배고픔을 모르고 호흡할 때 심령이 일취월장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라나니 사답칠두(寺畚七斗) 이 농사는 즉 복두칠성(정도령이 짓는 하늘 농사는 눈발이 없어도 곡식을 무한정 거두어 얻을 수 있으니 머지않은 세월 십년 농사(심승의 정도령이 감로해인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농사)로 감로 해인을 만년을 먹고도 천만년을 먹고 살게 되리라.*

박명하/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 | |
|--|--|
| 승리신문 |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 |
|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에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 |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 승리신문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
| 홈페이지 www.victor.or.kr | |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